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190회 디아코니축제에 참여하고 수고해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음식 바자 총 수익: 3.264유로, 판매수익: 3.033유로, 순수익: 1.310,50유로
- 추수감사주일: 10월 4일 주일, 연합예배, 성찬식
- 오늘은 나라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나라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 오늘 2부 예배: Theodor-Fliebler-Saal에서 드립니다.
- 예배당 진입문 변경: 10월부터는 예배 시작 5분 전에 강대상 쪽 출입문 닫고, 반대편 쪽 정문으로만 출입합니다.
- 가족 토요기도회: 매월 첫째 토요일 7시 믿음방
- 네팔 대홍수 피해 이웃 돕기 헌금: 9월 말까지('네팔'이라 표기해 주세요)
- 매일성경 9,10월호가 도착하였습니다. Teestube에서 받아가세요.
- 지난 주 방문: 장애심/신가나,신동우
- 별세: 박희영 집사 모친 오영숙 권사(9월 19일, 1946년생)
- 생일: 한상철, 배지율, 유시아, 손민해, 황선우, 윤영숙, 홍이든, 조경숙, 박재희
- 8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 11월 22일 주일
장로, 여성 은퇴자, 안수집사, 권사,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대표
각 1인(총 7인 위원회)

◆말씀일기 일정

일/삿9:7-21 월/삿9:22-45 화/삿9:46-57 수/삿10:1-18
목/삿11:1-11 금/삿11:12-28 토/삿11:29-40 일/삿12:1-15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89독 (김한진 1독)

◆ 예배위원 안내 ◆

	9월 20일	9월 27일	10월 4일	10월 11일
예배기도	장혜진	석혜진	추수감사주일	채해웅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박성희 배진우			
애찬위원	밥상 여섯	밥상 일곱	밥상 여덟	밥상 하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3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60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415장	다 함 께
기도/Gebet		장혜진 집사
찬양/Chor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사사기 9:7-21	인 도 자
설교/Predigt	웃기는 이야기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290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사사기 7:15-25 ‘약점을 강점으로’◀

기드온은 말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게 강점 같지만, 그를 겁쟁이로 만드는 약점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 수를 줄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다. 분명한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2).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 하는 인간과, 어떻게 해서든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얼핏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드온에게 있는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간단하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두려워 떠는 자”(3)들을 다 걸러내고 “기드온의 300 용사”를 선발하라고 하시는 과정이나, “두려워하거든”(10)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 보라고 명하시고, 적들이 자신들이 꿈 이야기를 엮든게 하심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와 주신 일들(13-15), 모두가 역설적으로 ‘큰 용사’ 기드온의 내면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일련의 훈련 프로젝트처럼 보인다.

겁 많은 기드온은 두려움만 떨쳐낼 수 있다면 최고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함을 갖게 된 기드온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뛰어난 지략을 발휘한다. ‘말하고 듣고, 보기를 좋아하는 그의 특질’이 매사에 두려워하는 약점으로 나타나다가 이제는 강점으로 나타난다.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등을 통해 음향 및 시청각 효과를 극대화한 최고의 심리전을 펼침으로써 적군들이 혼란에 빠져 자멸하도록 한다(15-23).

겸손하며 담대하기가 쉽지 않고, 역으로 용맹스러우면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이스라엘의 싸움은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일그러진 자신들과의 싸움이였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적군과의 싸움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 “겸손하되 담대하라!”

▶지난 주 봉헌 내역(9월 13일-9월 20일)◀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단주현, 서연주, 한정우, 김종권		손민주	
총액 1.320,00 유로			